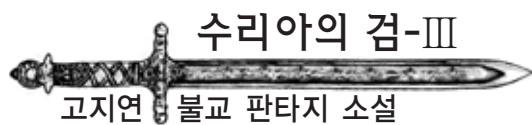


물건 이름도 모르면서 자기 물건이라 할 수 있나



사막의 세 머리 용 (3)

“당신이 바로 총장인가요?”
 “그래, 그렇다. 너는 저 녀석하고는 달리 똑똑해 보이는데. 너희들이 간헐 진짜 이유가 뭔지 짐작 가는 바가 있으면 말해 보거라.”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지 나무 열매를 몰래 따먹었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그래? 어째서?”
 총장이라는 자가 되물었다.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다.
 “어제 멀리서부터 시작한 불길이 거의 이 근처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을 리 없죠. 우리 역시 그 불을 피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분명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인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있을 피해를 대비해서 대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집집마다 문은 다 닫혀있더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맞아. 산불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문을 잠가봤자 무슨 소용이야.”
 무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만약 화재 때문에 마을에 인적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그런 척을 했다는 게 되요. 그러면 마을 전체가 우리를 함정에 빠트리려 한 걸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리라고는 우리 자신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당신들의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겠지요. 열매 몇 개 따 먹은 정도는 큰 이유가 아닐 테고요.”
 “그래. 도대체 나무에서 그거 몇 개 따 먹었다고, 사람을 가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신들 모두 도대체 무슨 꿈공이야!”
 무니는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노려봤다.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나누던 마을 사람들은 그런 소년의 시선을 피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흠. 지금 생각해보니 너희들에게 굳이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내가 어떤 설명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 같구나.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묻겠다.”
 눈동자만 겨우 보일 정도로 작은 총장의 눈이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 봤다.
 “너희같이 어린애들이 떠도는 걸 보면, 분명 다른 가족이 없다는 소리겠지?”
 “그래. 없다. 왜! 도대체 그런 건 왜 묻는 건데!”
 발끈한 무니가 대답했다. 난다는 그런 친구 때문에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총장이 두 사람 모두와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 그럼 둘이 한 날 한 시에 죽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니겠구나.”
 무니와 난다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총장을 바라



삽화·김홍인

봤다. 그의 눈은 웃지 않았지만, 크고 두꺼운 입술의 한쪽 끝은 미소를 짓는 듯 올라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남파라는 소년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결국 두 사람은 아침의 그 장소에 다시 갇히게 되었다. 그들을 데려다 놓은 사내가 문을 닫으려하자, 난다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근데 우리 물건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 물건이라...”
 남자는 말끝을 흐렸다. 그는 눈이 작다는 것 말고는 아까 봤던 마을 사람들과 판이하게 다른 생각이 있었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컸으며 피부는 아파보일 정도로 창백했다. 말할 때마다 술 냄새가 풍겨왔는데, 자세히 보면 눈빛도 흐리멍덩해서 누가 봐도 술에서 덜 깬 사람 같았다.
 “이런 와중에 너희 물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재미있군. 그럼 재미는 있지만 재수는 없는 녀석들인 건가. 이 마을 최초의 감옥에 최초의 죄수들이라. 후후. 세상이 흥흥해질수록 재미난 일이 많아진단니까.”
 “뉘야. 이 녀석 이상하잖아.”
 무니가 내뱉듯 말했다. 그 말이 절절 소리 내어 웃던 남자가 다시 문을 잠그려다 말고, 문득 생각난 듯 행동을 멈췄다.

“근데 사르나트의 바퀴 말이야. 그건 어떻게 손에 넣은 거지?”
 “사르나트의 바퀴? 그게 뭐야?”
 무니가 난다에게 물었다. 그러나 난다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이더니 뭔가 생각에 빠진 듯 대답을 못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이름도 모르면서 자기 물건이라고 할 수 있나.”
 “웃기시네. 이름만 알면 그게 뭐지 다 안다는 거야, 뭐야!”
 무니가 남자의 말을 받아쳤다.
 “하하. 그런가. 하여간 안타깝겠지만 그건 이제 너희 물건이 아니야. 이제 꼬마들은 암전히 여기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남자가 문을 걸어 잠그며 다시 미소를 지어보였다. 무니는 문이 닫히자, 견딜 수 없다는 듯 다시 문을 걸어차며 소리쳤다.
 “이봐! 도대체 우리 운명이 뭔지는 알려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문 너머에서 남자가 대답했다.
 “흠. 산불 조심과 화재 예방 정도?”
 무니와 난다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다. 남자의 톡톡 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화재 예방이러니, 뭐야. 웃기는 녀석이지. 운명이라는 둥 이상한 헛소리나 지껄여대고.”

하지만 골똥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난다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어제 불이 번지던 광경, 정말 엄청났잖아? 넌 무섭지 않았어?”
 생각이 못한 질문에 무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난데없어 무슨 소리아?”
 난다가 계속 말했다.
 “난 무서웠어. 그래서 어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데?”
 “좀 이상했던 거 같아서 말이야. 이쪽이 그렇게 빠르게 불이 번질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아니잖아. 하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넓게 퍼졌어.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불길이 시작된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었던 거 같거든. 적어도 세 군데 이상에서 불이 피어올랐던 거 같아. 왜일까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거의 동시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불을 질러서?”
 난다는 “왜?”라고 반문했다.
 “정신이 나갔으니까?”
 무니가 당연한 걸 왜 물어보느냐라는 듯 간단히 대답해 버리자 난다가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할 줄 알았나! 어이구. 장난해? 정말 그 불부터 시작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고, 아까 그 남자 말도 걸리고. 총체적으로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단니까.”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도망가면 되잖아.”
 난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는 너 생각이 너무 없고? 뭇만 빠져나간다고 다 되는 거야? 책도 그렇고, 중요한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꼭 가지고 가야해? 무겁기만 하고, 내가 언제 그 책들을 다 해독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무슨 소릴 하는 거야! 그 책 중에는 할아버지가 주신 책도 세 권이나 있는데. 그리고 적어도 내 사르나트... 트? 하여간 그 바퀴는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렇구나. 그게 있었지, 참.”
 무니는 난다의 말에 금방 수긍했다.
 “그런데 아까 그 녀석이 말한 사르나트의 바퀴라는 이름, 그게 정말 그 물건의 이름이라면 그 녀석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난다, 너 그 이름 처음 듣는 거지?”
 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내 책가방! 지도, 사전 모두 거기 들어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여기가 대충 어딘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게다가 이제까지는 이름을 몰라서 그 수레바퀴를 해독하는 방법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었잖아.”
 난다가 점점 울상이 되어갔다.
 “이제 이름을 알았으니 사전의 모든 항목을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그만둬도 될지도 모르는데!”
 무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휴. 책, 책, 책! 책에 안 나오는 게 있기는 하나?”
 “물론! 없는 거 말고는 다 있지. 하지만 지금은 그 책이 없으니, 뭐.”
 난다의 눈동자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다.
 “그런데 정말 아까 그 남자는 뭐하는 인간일까. 사르나트의 바퀴 어쩌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책들은 고대어라 읽기도 힘들텐데, 왜 욕심을 내는 거지?”
 이번엔 난다가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 주장쟁이 녀석한테 신경 쓸 때냐.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건지나 생각해 보자고.”
 그러나 난다는 다시 자신의 책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 내 책가방...”
 무니가 한숨만 폭폭 내쉬는 난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누군가 문을 툭툭 두드렸다.
 “먹을 걸 좀 가져와. 이 밑으로 넣을게.”
 귀에 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 밑으로 그들이 어젯밤 먹었던 열매가 들어왔다. 그걸 본 무니는 “이게 뭐야?”라며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치기 시작했다.
 “지금 놀리는 거야, 뭐야. 아! 이런 건 이제 줘도 안 먹거든. 이 문이나 그냥 열어! 도대체 우릴 왜 가둔 거야! 화재 예방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나 지껄여대고!”
 무니는 계속 문을 걸어차지만, 문 저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난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벌써 가고 없어.”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쫓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나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 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1·2부를 시청하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의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 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후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곡역) 휴대폰 010-9217-2237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성수, 도영합장